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신생LCC, 날개 접을까 고심

플라이강원 직원 160명 무급휴직
임원 사퇴추진... M&A 검토 계획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AOC 발급 지연에 지원금도 못받아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지 약 1년 7개월 만에 신생 LCC(저비용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날개를 접을 위기에 놓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저비용항공사 3사는 제대로 운항해보지도 못하고 경영난을 겪게 됐다. 올해 들어 확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 시장의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해지는 등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양-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첫 운항에 나선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아직 비행기를 띄워보지도 못했다.



(위쪽부터)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항공기.

그나마 운항을 하고 있는 플라이강원도 최근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무급휴직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일단 10월 한 달간 전 직원 240명 중 필수인력 80명을 제외하고 160명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그간 정부의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텼지만, 이마

저도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무급휴직을 택한 것이다.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더라도 직원들 급여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이 같은 무급휴직 결정과 함께, 공동대표 등 임원 9명이 일괄 사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임원 9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 같은 임원들의 사퇴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플라이강원은 비용 절감만으로 회사의 존립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방안인 M&A(인수 합병)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앞서 먼저 관계사와 기존 주주를 통한 자금 유치로 경영난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축소하고자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고용부에 신고하면 휴직 대상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무급휴직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에 달린 것 같다. 여러 자구 노력을 했어도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 전체가 사직서를 낸 것은 맞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사회 의결이 남아 정확히 결정된 부분은 없다. 어쨌든 현재 임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와 기존 주주들의 출자를 많이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상 경영의 일환으로 10월 한 달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이달 투자 유치가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긴축 경영에 들어간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지난 2월 신청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각 업무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AOC 발급이 계속 지연되며 운항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AOC 발급 지연 이유에 대해 “국토부 사정이 아니

라 에어프레미아가 787 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제작사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셋다운을 했다”며 “항공기가 도입돼야만 AOC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유동성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리 대비 차원에서 신청자만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다”며 1호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잉사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았다. 11월 초에는 입고가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도 국토부로부터 AOC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청주-제주 노선을 통한 첫 취항을 목표로, 지난 2월 A320 기종의 1호기를 청주 공항에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운항 증명을 신청한 뒤 약 1년이 됐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인 현장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 역시 이미 직원을 채용해 정상 근무 중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새 디자인 출시

한샘·일러스트레이터와 협업
흡입에 강하고 지문 잘 안묻어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가 작품을 입는다.

삼성전자는 인테리어 기업 한샘, 프랑스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티보 예렘 등과 협업해 새로운 비스포크 냉장고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한샘의 프리미엄 브랜드 ‘키친바흐’에 사용되는 ‘페닉스’ 소재를 비스포크 냉장고에도 적용한다. 페닉스는 이탈리아 가구 소재 업체 아르파인더 스트리알레가 개발한 소재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지문이 잘 묻지 않아 관리가 용이하며, 매트한 질감으로 최근 유행하는 무광 소재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다.

비스포크 냉장고 키친핏 타입이 페닉스 패널을 적용하며, 한샘 키친바흐 주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삼성전자

방기구와 함께 빌트인 룩을 연출할 수 있게 했다. 4도어 냉장고와 3도어 김치냉장고, 2도어 냉장고와 1도어 냉장고 등 7개 타입으로, 베이지와 다크 그레이, 블랙 등 3가지 색상을 선택 가능하다.

출고가는 99만9000원에서 469만9000원이다. 20일 출시 예정이며, 한샘 리하우스와 키친바흐 매장, 한샘 디자인파크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juk@

호주 소비자들, LG 주방가전에 ‘엄지척’

잡지 초이스서 3개 제품 브랜드 1위

호주 소비자들 LG전자 주방가전에 엄지척을 치켜들었다.

6일 LG전자에 따르면 호주 소비자 잡지 초이스는 2020년 최고의 전자레인지 브랜드로 LG전자를 선정했다.

초이스는 모든 제조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평균 평점, 브랜드 신뢰도, 고객만족도, 추천제품의 비율 등을 종합해 브랜드를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엄격한 제품테스트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

LG전자 전자레인지는 89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2위인 샤프보다 10점이나 앞섰다. 아울러 LG전자 식기세척기,



LG전자 주방가전. /LG전자

냉장고 등 다른 주방가전도 초이스로부터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식기세척기(모델명: XD3A25MB)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초이스 소비자 평가 1위에 올랐으며, 이번에도 83점으로 52개 제품 중 1위를 지켜냈다. 세척 및 건조 성능, 에너지 효율성 등에서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김재용 기자

볼보 SUV, 신차 넘어 중고차 경쟁력 입증

‘XC60’ 중고차 잔존가치 부문 1위
작년 2969대 판매... 세일즈비중 28%

지난해 볼보자동차 한국 진출 이후 처음 연간 1만대 판매 달성을 견인한 핵심 차종 ‘XC60’이 중고차 잔존가치 부문에서도 동급 1위에 올랐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6일 볼보자동차에 따르면 XC60이 엔카닷컴이 조사한 19년식 중대형 SUV 잔존가치 조사결과 89.1%를 달성하며 수입차 부문 1위를 기록했다. XC60의 평균 잔가는 경쟁 모델의 평균 잔존가치율(83%)보다 약 6% 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볼보자동차는 최근 대형 플래그십 SUV인 XC90이 2년 연속 수입 대형SUV 잔존가치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재입증했다.

XC60은 지난해 2969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28.1%의 세일즈 비중을 차지, 볼보자동차코리아 1만대 클럽 가입을 이끄는 핵심 차종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 또한 전체 누적 판매량(7929대) 중 21.5%(1703대)로



볼보자동차 XC60 정측면.

전체판매 비중 1위를 기록 중이다.

신형 S60(1365대)과 크로스컨트리(V60)(1306대)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글로벌 전체 판매량(38만723대) 또한 29.6%(11만2560대)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 셀링 모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2020년 연령별 누적 판매량을 살펴 보면 XC60을 비롯해 S60 등을 포함한 60클러스터(XC60-S60-CC V60)의 구매 연령 비중은 30대(22.8%), 40대(19.7%), 50대(10.5%) 순으로 집계됐다. 3040세대는 한국 수입차 시장의 핵심 고객층으로 분석되는 만큼 타 클러스터 대비 60클러스터의 해당 연령 구

매 비중이 높은 것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중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 XC60이 중고차 시장 포함 신차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최초’라는 타이틀의 영향도 있다.

지난 2017년 국내 출시된 XC60은 브랜드 최초 KAJA 주관 ‘2018 올해의 월드 카’에 선정 됐으며, 글로벌 최초 한국인 디자이너 이정현씨가 메인 디자이너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뛰어난 상품성은 물론 출시와 함께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모델로 자리잡았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내달 2일 ‘AI 포럼 2020’ 개최

유튜브 채널로 전세계 생중계

삼성전자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삼성 AI(인공지능) 포럼 2020’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 AI 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4회째인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임을 감안해 온라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에서 전세계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행사는 종합기술원이 첫날, 삼성리서치가 둘째날 주관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신청을 받는다.

종합기술원은 ‘현실세계의 변화를 위한 AI 기술’을 주제로 정했다. 기구

변화와 팬데믹 등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 분야와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한다.

김기남 부회장이 개최사를 맡았으며, 몬트리올대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 뉴욕대 안 르곤 교수, 스탠포드대 켈시핀 교수 등 석학과 종합기술원 합동희펠로우,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제니퍼 위트만 본 박사 등 연사들이 발표를 맡았다. 시스템LSI사업부 강인엽 사장도 패널로 참여해 함께 토론한다.

/김재용 기자